

『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의견서(안)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구미시 관내에는 '02년 이마트 구미점을 선두로 홈플러스 구미점 롯데마트 구미점이 '05년 각각 개설되므로 인하여 대형소매점 3개소가 입점된 상태이며 조만간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이 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대로 진행된다면 인구 40만 도시에 대형소매점이 5개소로 80,000명당 1개소로 전국 최악의 여건에 직면하게 되며, 대형 소매점 3개소의 연간 매출액 2,790억원 자금의 역외 유출로 인하여 재래시장, 자영업자, 중소기업체 등의 경영 위축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중요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 그리고 재래시장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함.

다 음

○ 구미시는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예상 명칭) 등 신규입점 대형소매점에 대해서 현지법인화 또는 그에 준하는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을 필수 영업 개시 조건으로 표방할 것을 적극 유도할 것이며,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재래시장 붕괴 등 지역상권을 외면한 채 독식하며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를 외면하는 기존 3개의 대형소매점들은 지역에 있는 이상 지역과의 유대 관계를 고려하고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시키는 운영 구조 개선과 “돈을 벌고 있는 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회적 역할에 적극적인 “지역 친화형 유통업체”로 변모할 것을 촉구함
- 구미시는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형태로 진출하는 현대백화점 대구점 모델을 거울삼아 지역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억제, 지역상품 구매, 공익사업 참여, 판매자금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지역중소기업과 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까다로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간접 규제를 통한 강한 행정력 집행이 요구됨
- 따라서 구미시의회는 40만 구미시민과 더불어 향후 입점하는 대형소매점들이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을 표방할 것을 촉구하며, 구미시는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지역금융기관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 지역 농·공산품 구매, 고용창출, 등 민간단체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행정력 유도로 대형소매점과 지역상권과의 공존·공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함

2008. 8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